

CJ제일제당, 발암 우려 식용유 회수

체내에서 글리시돌 생성 우려 ... 국제암연구소의 발암가능물질 해당

CJ제일제당의 다이어트 식용유가 발암 의심물질 함유 우려로 판매 중단됐다.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CJ제일제당의 <라이트라>와 <체지방 걱정을 줄인 라이트라> 등 2개 식용유가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을 생성할 우려가 있어 판매를 금지한다고 9월22일 발표했다.

판매 금지된 제품은 일반 식용유의 분자구조를 변화시켜 체내 흡수를 줄임으로써 열량 섭취량을 줄일 수 있도록 개발된 식용유 제품 2종으로 제조 과정에서 안전성 논란이 있는 글리시돌지방산에스테르가 생성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글리시돌지방산에스테르는 체내에서 발암 의심물질인 글리시돌(Glycidol)로 분해될 수 있다.

글리시돌은 국제암연구소(IARC)에서 발암 가능 물질(Probably Carcinogenic)인 2A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.

일반적인 식용유는 트리아실글리세롤 구조인데 판매 금지된 <라이트라> 등은 트리아실글리세롤의 분자구조에서 지방산 가지 하나를 없앤 디아실글리세롤 구조를 갖고 있어 체내에서 잘 흡수되지 않아 일반 식용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살이 덜 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그러나 최근 해외에서 다이어트 식용유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의 전구체인 글리시돌지방산에스테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.

이에 따라 식약청이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글리시돌지방산에스테르 생성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며, CJ제일제당은 2개 식용유를 자진 회수키로 결정했다. <저작권자 연합뉴스 - 무단전재 · 재배포 금지>

<화학저널 2009/09/22>